

# 전주시 '3·1운동 100년' 준비 철저

## 기념사업 추진위한 세미나

역사학자 등 전문가 참석  
세부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  
3·1운동 관련 DB 구축  
자료 정비해 가치 재조명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3.1운동 100주년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 시민들도 잘 모르는 전주 지역 3.1운동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는 20일 전주중부비전센터 글로리아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방향에 대해 역사학자 등 전

문가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주의 3.1운동에 대한 재조명 △3.1운동 가치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발굴 방안 △일제 잔재 처리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홍 교수는 "우리는 전주 3.1운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며 "시민들이 전주에서 진행된 3.1운동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민족 독립운동사 정리작업과 전주 독립운동사 학술대회, 전주 독립운동사 교육사업, 전주 독립운동 참여자 조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다. 단순히 기념비를 세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주 3.1운동의 장소를 시민들의 기억에 남기고, 그 공간에 이야기를 담는 스토리 라인 구축이 있어야 한다"라며 "100주년은 출발이며 1년의 행사를 벗어난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8

대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기초발제자로 나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3.1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등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주현 청암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3.1운동의 과정을 보도한 매일신보와 판결문, 해방이후 기록 자료를 등을 근거로 '전주 지역의 3.1운동'을 설명했다.  
전주지역의 친일 잔재 청산'을 주제로 발표한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일제잔재 청산이 단순히 물리적인 제거나 이전(移轉)보다는 역사의 교훈으로 올바르게 기록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명준 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제2부 토론회는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과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오경택 성심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정숙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3.1운동 정

신의 계승방안 △정책 거버넌스 운영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세미나에 내년에는 전주 지역의 3.1운동 기념사업 연구용역과 각지에 퍼져 있는 3.1운동 관련 기록물과 인물 등을 찾아 3.1운동 관련 DB 구축 및 자료를 정비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해 3.1운동 정신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행사로 만들 방침이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사업이 단순한 역사적 기념에 머물지 않고 전주 시민의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가 되도록 힘쓰겠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정성 담은 맛있는 떡국" 20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직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익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작은자매의집'을 방문해 시설 환경 정리 및 떡국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 새내기 공무원 '디딤도움' 엄지 척

## 도교육청, 직무역량 향상 지원 학습제도... 소통·협력 조직문화 조성 기여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디딤도움'이 신규 공무원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신규 공무원 등의 직무역량을 키우고 원활한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해 디딤도움을 시행하고 있다.

디딤도움은 디디다와 돕다를 조합한 말로 후배 공무원이 선배 공무원을 디딤돌 삼아 직장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제도다.  
도 교육청은 올해 신규 공무원과 초

임 행정실장인 디디미 148명과 선배 공무원인 도우리 100명이 각각 조를 구성해 활동했다.  
이들은 월 1회 디딤도움의 날을 정해 문화 체험과 체육행사, 친교활동 등을 함께하며 원활한 조직 적응에 도움을 줬다.  
/김민근 기자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멘토링제를 운영했으나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주관으로 공식적인 디딤도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선후배 간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신규 공무원과 후임 행정실장의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디딤도움' 평가회를 오는 21일 연다.  
/김민근 기자

#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주' 알릴 서포터즈 모집

## 시, 2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받아... 활동료 지급·주요행사 초청 등 혜택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글로벌홍보 서포터즈를 오는 모집한다.  
글로벌전주 서포터즈는 외국인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영문 페이스북(www.facebook.com/globaljeonju) 운영을 위해 선발되며, 외국인과 시민 등 직접 취재와 사진촬영, 동영상 제작, 통번역분야 등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시는 SNS 및 해외홍보에 관심 있는 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며, 오는 28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주시 영문 페이스북(www.facebook.com/globaljeonju)에서 내려 받은 서포터즈 지원서를 작성 후 이메일(humi03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며, 서포터즈에게는 활동에 따른 소

정의 활동료와 시 주요행사 초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초 글로벌전주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전주시 영문 페이스북을 통한 해외홍보에 힘써왔다. 이들 서포터즈는 전주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등 전반적인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면서,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왔다.  
/김민근 기자

또한, 시는 그간 영문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맛과 멋, 주요행사 등을 알렸으며, 국제한식조리학교 등과의 협업으로 한식요리 동영상 등을 게재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는 한국문화의 중심도시로 글로벌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 "외국인들과 가장 빠르고, 가장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SNS이며, 글로벌전주 서포터즈가 전주시 해외홍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전북대 산학협력 페스티벌 26일 팡파르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26일 교내 진수당 일원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2017 CBNU LINC+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100여 점의 창의적 공학설계(캡스톤디자인) 작품이 산업체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시되며, 학생 아이디어를 기업체에 이접할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 육선마켓도 개최된다.  
또한, 시제품 성과 발표회, LINC+ 사업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LINC+학생 페스티벌'과 함께 VR체험·항공시뮬레이터·드론축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 체험관', 전북지역 선도기업 정보와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북지역 선도기업 홍보관'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세계적 석학 16인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 '나를 발견하는 시간' 발간으로 화제를 모았던 양영은 앵커 특강과 다채로운 공연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고영호 LINC+ 사업단장은 "이번 산학협력 페스티벌로 학생들의 창의적 종합설계 능력과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배양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산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국립승리사립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